

학창시절부터 대통령까지... 그림으로 만나는 DJ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예향** 7월호



세계수영대회 제대로 즐기기

2019년 7월, 빛고를 광주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구촌 수영축제인 '2019 광주 FINA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12-28일까지 펼쳐지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7월호는 특집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광주일보가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청년 작가 13인전 'DIVE INTO YOU', 미리보는 개폐회식, 8월에 이어지는 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 대회까지 수영대회를 두배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꿀팁을 제공한다.

7월에 만나보는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이장호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자, 지난 5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사상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0돌을 맞은 한국영화계에 보내는 축하 선물이었다.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감독으로 부터 한국영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들었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아 다양한 여행지로 안내한다. 전남 도내에서는 '힐링여행 일번지'를 표방하는 전남 무안으로 향한다. 황토와 갯벌, 연꽃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세발 나차, 돼지짚불구이, 명산장어구이 등 '무안 5미(味)'가 입맛을 사로잡는다. 7월 25-28일 연꽃축제가 열리는 화산백련지와 방갈로-오토캠핑장을 갖추고 있는 갯벌체험 학습장이 있는 무안으로 여름여행을 떠나보자.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에어컨 바람에 지쳐가는 도시민들에게는 자연이 주는 시원함을 선물하고 싶다. 지리산과 백운산, 담양까지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이쁜 계곡들을 소개한다. 차를 멈추는 곳곳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 매혹적인 바다와 신나는 물놀이, 그리고 즐거운 소풍까지 겸할 수 있는 괌(GUAM)에서의 느긋한 삶 속으로 떠나는 시간도 준비했다.

문화관광을 떠나고 싶다면 이번 여행지는 강원도다. 근대 강원도의 관광은 성수기 중심의 자연 경관에서 사계절 문화예술 콘텐츠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로망으로 떠오른 원주의 '뮤지엄 산', 삼척의 '삼아트마인', 강릉의 '하슬라아트월드'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외에 최근 막을 내린 제64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최고상을 수상한 예술 꿈나무들을 소개하고 화제의 전시 코너에서는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40돌을 기념해 전시중인 '흑백의 향연'을 들여다본다. 또 햄버거집 사장-야구 해설자로 마운트 밖 세상에서 분주하게 도전중인 'BK' 김병현, 27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생애 첫 개인전을 가진 해남 출신 프랑수아 활동화가 한홍수 작가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준비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김대중 대통령 10주기를 기리는 전시회가 열린다. 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회가 주최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회장 정진백)가 주최하는 서기문 작가 초대전 '동행-민주 평화, 그리고 희망'전이 오는 31일(개막식 2일 오전 11시)까지 김대중기념공간(화순군 도곡면 운천2길 44) 갤러리 평화에서 열린다.

2007년 '서기문의 광주정신'전, '미술과 사회'전 등을 통해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꾸준히 성찰해 온 서기문 전남대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거의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꾸준히 화폭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긴 초상화가 전시된다. 교복을 입은 목포상고 재학시절,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시절, 수의를 입고 있는 옥중 모습, 그리고 대통령 집무 당시 등 사진으로 친숙한 모습을 담은 수채화 그림의 사실적인 그림으로 만날 수 있다.

서기문의 대표작인 '동행' 시리즈에서도 김 전 대통령을 추억할 수 있다. '동행' 시리즈는 민주·인권·평화 운동에 헌신하며 역사를 바꾼 세계적인 인물들을 한 화폭에 그려넣음으로써 그 인물들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현재화한 기획이다.

올해 그린 신작 '동행-김대중&김정일'에는 고인이 된 남북 두 지도자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겼다. 또 지난달 세상을 떠난 이희호 여사와의 동행 모습,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와 함께 있는 모습 등도 눈길을 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역사적 인물들의 '동행'도 전시된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 지식인인 리영희와 촛스키, 사법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재심 변호사 박준영과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드레퓌스의 무죄를 이끌어 낸 진보 지식인 에밀 졸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존을 외쳤던 에드워드 사이드와 다니엘 바렌보임 등 시공을 초월한 다양한 인물들을 한 화면에 배치했다.

5일 오후 2시부터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사상과 국제 이해'를 주제로 '김대중 광주평화아카데미 국제 학술대회'도 열린다. 임종면 전남대 사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류시현(광주교육대 교수)의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한국사 인식', 오오타 오사무(일본 도시사대교 교수)의 '김대중의 대 아시아 인식과 한일회담', 이상록(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의 '1964-1971년 김대중의 의정활동과 민주주의 인식',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의 '야당 정치인 김대중과 미국' 등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이용기(한국교원대), 노영기(조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역사를 기념하고 고귀한 정신을 아름답게 구현하기 위해 학술, 전시, 출판,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형태의 계승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2012년 화순에 문을 연 김대중기념공간은 갤러리, 도서관,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의 061-371-9975. /김미은 기자 mekim@



'동행-김대중&김정일'



'국민후보 김대중'

제42회 필우회 회원전

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김복수 작 '終南望餘雪'

필우회(회장 김복수) 제42회 회원전이 오는 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송파(松坡) 이규형 선생이 운영하는 광주삼학사에 원에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 필우회 회원들은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서체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전시에는 이규형 원장의 친조출품작을 비롯해 김경수·채병기·이기숙·정희동·안병준 등 회원 63명이 작품을 선보였다. 임재선사, 이백, 조식, 서가정, 서산대사, 정몽주, 도연명, 최치원 등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글귀와 '명심보감', '천자문' 등 삶의 가르침을 담은 책에서 뽑은 글귀를 정성스레 적은 작품들이다.

지난 1977년 모임을 결성한 후 1979년 34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첫 전시회를 연 필우회는 매년 정기회원전을 열고 있으며 양정태, 기호중, 박용주, 이점숙, 정재호, 김송자, 위경애 회원은 서원을 운영하며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갤러리서 만나는 '이승규의 뮤직스케치'

1~3일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 3가지 콘셉트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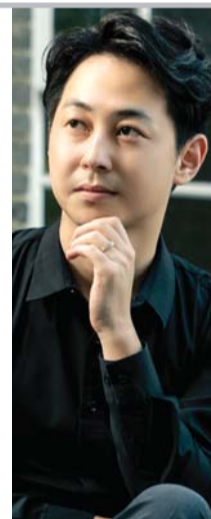
작곡가 이승규가 다양한 무대로 구성된 공연 '이승규의 뮤직스케치: Three formats concert'를 선보인다. 1-3일 오후 7시30분 양림동 이강하미술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일환인 이번 공연은 연주자와 관객 배치 구도를 중심으로 기획한 3가지 콘셉트를 3일에 걸쳐 선보인다.

첫 날 열리는 '360° 클래식 of 밤'은 연주자를 중심으로 관객들이 360도로 둘러앉아 감상하는 공연으로, 이승규 피아노 모음곡 '자음상', 영화 '라라랜드' 삽입곡 'City of stars',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을 무대에 올리며 플루티스트 나리, 남성 5인 중창단 '쇼인어스'가 함께 연주한다.

'IMeter 창작의 밤' (2일)은 연주자와 관객이 1m 거리 내에서 함께 하는 '밀착 음악회'다. 이승규 피아노 모음곡 '양림의 거리' 연주에 이어 작곡 배경, 곡에 담긴 에피소드 등 해설이 함께한다.

마지막 3일엔 관객이 연주자의 뒷모습을 감상하는 콘서트 'BACK 퓨전의 밤'이 펼쳐진다. 이 작곡가가 작곡한 바이올린소나타 1번 '정추 1923-2013', 가곡 '양림, 시인의 마을', 첼로소나타 '이강하리듬-초월' 등을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산, 피아니스트 김지현, 테너 장호영, 가야금 흥윤진, 첼리스트 박효은의 연주로 선보인다.

이 작곡가는 '광주의 노래', '양림, 시인의 마을', '광주, 시를 노래하다' 등 작곡발표회를 비롯해 음반 1집 로망스, 2집 '광주(光州)'를 발표했으며 지금은 문화장작소, 광주작곡가대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각 회당 1만원. 문의 010-3093-482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승규 작곡가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안건축사업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특별리더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